

# 네오위즈, 내러티브 인디게임 공모전 '네오위즈 퀘스트' 개최... '역대 최대 상금'

✎ Cho Hyun-jong | ⓒ 승인 2025.03.11 14:14

내년 1월 16일까지 네오위즈 퀘스트 티징 페이지에서 모집  
총 상금 1억6,500만원... 네오위즈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



네오위즈가 내러티브 인디게임 개발 공모전 '네오위즈 퀘스트'를 개최했다. (사진=Neowiz)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배태근)는 내러티브 인디게임 개발 공모전 '네오위즈 퀘스트(NEOWIZ Quest)'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네오위즈 퀘스트'는 국내 인디게임 시장에서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내러티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 중심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공식 티징 페이지를 통해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개인 개발자, 개발사,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게임의 장르 및 플랫폼의 제약은 없으나, 얼리엑세스 등 이미 상용화된 작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제출한 신청서나 빌드 등은 마감 기한 직전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약 1년의 모집 기간을 거쳐 대상, 최우수상, 입상 등 총 10개 팀을 선발한다. 오프라인 시상식은 2026년 3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총 상금 1.65억 원으로, 네오위즈가 시행한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게임의 새로운 미래는 탄탄한 세계관, 독창적인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팬덤 등 내러티브가 가진 힘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네오위즈 퀘스트를 통해 더 많은 창작자들이 내러티브 중심의 인디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새로운 인디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디 게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네오위즈는 첫 퍼블리싱 작품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극찬받은 '산나비' 등 인기 인디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올해는 퍼블리싱 계약을 통한 '안녕서울: 이태원편'과 '쉐이프 오브 드림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국내 인디 게임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구석 인디 게임쇼'도 개최해 왔다.

[속보는 IT타임스 텔레그램으로\(클릭\)](#)

IT타임스 Cho Hyun-jong (hjcho@ittimes.com)



Cho Hyun-jong hjcho@ittimes.com